

# 모던·고딕시대 복식과 포스트모던·르네상스시대 복식의 유사성 비교

## Comparison on Similarity of Clothing between Modern and Gothic, and between Post-Modern and Renaissance Period

박 숙 현

경성대학교 생활과학부 의상학전공

Park, Sook Hyun

Dept. of Living Science, KyungSung Univ.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similarity of clothing between Modern and Gothic, and between Post-Modern and Renaissance Period.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beauty of ideal body was changed from unemphasis of body line to emphasis of the erotic aspects of body. The style of clothing was changed from simple and functional in order to give freedom in action, to various and complicated in form, and even uncomfortable in order to emphasize individuality. Decoration on clothing like details, trimmings, and various accessories were not preferred in Gothic and Modern Period, but very popular in Post-Modern and Renaissance Period.

### I. 서 론

20세기 접어들면서 모더니즘(Modernism)의 옹호자들은 그 이념 및 조형예술에 나타난 미적규범을 삶 전체의 모델로 확장하여 새로운 이상향을 꿈꾸며 유토피아적 모더니즘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고 난 다음의 허무주의와 기존 전통 및 참된 가치기준에 대한 혼돈과 회의 그리고 국제주의 양식으로 나타난 모더니즘적 조형물이 보여주는 장식의 배제된 딱딱한 기하학적인 조형물로 둘러싸인 환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시대흐름은 20세기 초에 보여주었던 집단

적 정체성의 일관된 표현 및 문화의 균등질 보다는 개개인의 다양한 삶의 형태와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경향 및 문화의 다양화현상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20세기 후반기의 변화과정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 시대의 모든 사회생활 및 인간 개인의 삶의 토대가 되어 일원적인 문화의 이미지를 형성하였던 고딕시대에서 전쟁과 기아, 질병 등에 의해 생존에 위협을 느끼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인간의 존엄성의 강조, 각 개인은 현세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와 능력을 가졌다든 자각에 의해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탈종교화, 다원적 사회구조를 형성하면서 르네상스 시대

를 맞이하게 된 그 당시의 시대적 변화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유사한 상황하에서 이를 토대로 형성되어지는 조형물의 하나인 복식에서 시기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지 규명해 봄으로써 특정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복식스타일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원적 사고의 사회구조를 이룬 모던·고딕시대 복식의 유사성과 다원적 사고의 사회구조를 이룬 포스트모던·르네상스시대 복식의 유사성을 규명하고 모던에서 포스트 모던, 그리고 고딕에서 르네상스시대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복식의 변화양상을 비교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중세, 르네상스의 역사관련 서적, 복식사, 그리고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문헌연구를 행하였으며 모던, 포스트모던 복식에 관한 사진자료는 패션잡지, 콜렉션지 등을 참고로 발췌하였다.

## II.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 및 양식적 특징

### 1. 모더니즘

모더니즘은 제한된 의미로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 전반기에 걸쳐 서구예술분야에 풍미한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예술운동을 가리키는 용어이다.<sup>1)</sup>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기능주의적인 모더니즘 디자인은 산업사회,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에 적합한 간결한 형태를 추구하는 양식으로서 장식과 기계미학에 입각한 기하학적인 선을 추구한 아르데코, 그리고 독일공작연맹의 표준화 규격화 이론에 의한 장식이 배제된 간결한 형태를 거쳐 20년대 바우하우스로 이어져 완성된 양식이다. 이는 건축분야에서부터 시작하여 산업제품 그리고 하이패션에 이르기까지 모든 디자인 영역에 영향을 주었다.<sup>2)</sup> 정시화<sup>3)</sup>는 그의 저서 '산업디자인 150년'에서 모더

니즘의 중심적 가설과 주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첫째, 과거의 절충주의와 양식적 아나키즘을 거부했다. 다시말해서 과거의 것,역사적인 것은 완전히 타파되고 새로운 기계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를 개발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둘째, 꾸밈과 장식을 거부하며 기하학적 형태를 선호했다. 또한 간결성, 명쾌성, 균등질, 순수성, 질서와 합리성의 가치를 신봉했다. 셋째, 국가적, 지역적 버나클러 양식을 거부하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국제적 양식만 찬성했다.

모더니즘 디자인은 유토피아적 모더니즘과 유기적 모더니즘으로 분류된다. 유토피아적 모더니즘은 바우하우스를 중심으로 20년대부터 전성기를 누리는 것으로써 기능주의(Functionalism) 이론에 입각한 무장식, 기능만 만족시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이론에 입각한 아주 단순한 형태의 디자인을 추구 했다. 건축의 외관에서 이 기능주의적인 경향이 먼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는 구조재료의 경제성과 역학적 합리성, 건물의 합목적성, 장식적 부속물의 배제가 그 특징이다.

기능주의 건축가들은 그들의 디자인을 기능의 철학에 바탕을 두고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와 장식제거의 관점에서 작업하며, 다른 분야의 조형 예술품 역시 건축과 마찬가지로 실용적인 목적에 유용한 작품일 경우에는 기능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때 기능이란 합리나 실용 따위의 측면이며 비합리, 충동, 상상력과는 대립되는 개념이다.<sup>4)</sup> 이런 기능주의적 모더니즘의 태동은 당시 산업발전과 대량생산 기술에 의해 결정되고 형성되었던 시대적 불가피성에서 맺어진 결정체였다.

### 2.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용어가 널리 파급되어 논쟁을 불러 일으킨 시대는 1970년대 후반 부터 시작되나 지금까지도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에 대한 의미에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sup>5)</sup> 포스트모더니즘이란 기본성격이 확고

한 고정범주에 머무는 것이 아닌 극도의 탄력적 속성을 지니고 각각의 독특한 영역 사이의 경계를 와해시키며 그 기본 성향도 혼성모방(Pastiche), 패러디(Parody), 역사적 인용, 깊이 없음, 의미상실, 주체의 해체, 절충주의, 다원화 현상 등 여러 가지 성격의 혼합으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탈창조, 붕괴, 해체, 탈중심, 분산, 차이, 불연속성, 분열, 소멸, 분해, 탈정의, 탈총체화 등의 용어로 묘사되는데<sup>6)</sup> 이러한 의미는 모더니즘에서 확립되어진 개념들과의 연관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용어들도 다소 포함되어 있다. 찰스 젠크스(Charles Jenks)<sup>7)</sup>는 “포스트모더니즘은 본질적으로 모더니즘의 지속과 모더니즘의 초월이라는 이중구조를 갖는다고 말하고 이 이중구조의 의미구조는 단순히 엘리트와 대중,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 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디자인 영역에서는 20세기초에 설정된 기계에 대한 대량생산에 적합한 기능적 순수함을 찾는 기능주의 개념 아래 표준화에 의한 획일성과 객관화가 모두 불가능한 가설에 불과했다는 회의론이 제기되면서 전례없는 절충주의와 함께 기존의 규범에 대한 해체의 양상으로 향하여 가게 되었다.<sup>8)</sup> 하이테크 디자인에서부터 쓰레기 재활용, 범람하는 키치적(Kitsch)사물과 이미지, 기술을 해석하는 디자인으로부터 수공예적 전통을 끌어당기는 디자인, 과거를 현재로 가져가는 복고풍에서 미래를 현재로 끌어들이고 사이버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제품들이 인간개성의 중시라는 개념아래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다.<sup>9)</sup>

포스트모더니즘 지배하에 생산된 예술의 특징은 모더니즘 예술이 추구한 내적의미 전달 및 예술가 자신들만의 독특한 스타일의 창조 대신 특별한 깊이가 없고 감정이 메말라 있는 정서의 퇴조현상, 주체의 죽음(the disappearance of individual subject)에 따른 천박한 회고적 스타일 및 복고풍의 패러디(parady) 또는 그것들의 무분별한 혼성모방(Pastiche)<sup>10)</sup>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예술에 있어서 나타난 큰 특징중 하나는 언어혼란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사상과 감정 또는 의식과 무의식의 혼동이 결합된 (합리적인것과 직관적인 것, 이성적인 것과 감상적인 것이 결합된) 진정한 의미의 언어가 아닌 횡설수설하는 분열증상으로서 전신분열증과 같은 경험이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다.<sup>11)</sup> 이러한 현상들은 예술작품 및 디자인 제품에 양식의 다양화가 나타나며 모더니스트들이 철저히 배격했던 장식과 꾸밈이 수용되어 작품의 복잡다단함과 모순 및 애매모호성이 나타나게 되며 이렇게 과거에 가치없던 현상들이 인간개인의 삶과 연관되어 점차로 의미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sup>12)</sup>

포스트모더니즘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이론은 해체주의(Deconstructionism) 이론이다. 상업적 부르주와 문화가 요구하고 강요하는 일률적인 형식을 해체함으로써 일정한 자유공간을 확보하고 그속에서 지금까지 억압되어 있던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해체주의 전략은 J. F. Lyotard, M. Faucault, J. Darrida 등의 철학에서 시작한 흐름으로써 이는 명백히 다원화 시대의 새로운 비판양식으로 볼 수 있다.<sup>13)</sup>

### Ⅲ. 모던복식과 포스트모던복식의 특징

#### 1. 모던복식

모던복식은 기능주의적인 모더니즘의 양식적 특성이 가장 잘 표현된 1920년대 복식을 선택하여 살펴 보았다. 20세기 초는 모더니즘의 틀을 마련하는 무수한 예술양식이 태동하였고 기계에 의한 산업사회의 형성으로 20년대 와서는 대량생산, 대중소비, 대중매체등의 “대중”의 시대가 도래되고 있는 시기였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공장 노동자가 필요해지고 농사일이나 수공예와 관련된 일을 하던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나감에 따라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여성들도 일해야만 하는 환경에 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계 제1차 대전을 전후해서는 그 공장 노동자들이 전쟁터에 나감에 따라 자리를 메우기 위

해 많은 여성들이 도시 근로자의 자리에 들어 오게 됨에 따라 여성의 사회 진출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정치, 사회에서부터 인간의 삶의 방법 태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여성들의 삶의 방식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다. 전쟁은 여성을 가정에서 해방시켜 외부 세계로 눈을 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때부터는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이라는 존재를 벗어나 활동적인 여성상을 요구했으므로 의상, 헤어스타일등도 이러한 요구에 따라 간편하게 바뀌게 되었다.

과거의 장식적인 성향에서 벗어나 모더니즘으로 변화해가는 과도기적 양식인 아르데코의 곡선 및 직선의 절충적 스타일이 20년대 복식 스타일 형성에 영향을 미친 한 요인이 되었다. 아르데코(Art Deco)는 1925년 파리에서 개최되었던 산업미술 국제박람회(L'Exposition International des Arts Décoratif)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아르누보와 기능주의적 모더니즘의 과도기적 양식으로 그 특징은 Hiller가 묘사한 합리화나 장식으로부터의 해방, 구조적 기능의 강조, 간결하고 경제적인 해결에의 집중<sup>14)</sup>외에도 곡선보다는 직선·좌우비대칭보다는 대칭, 자연보다는 인공성과 추상성이 중요시 되었으며 일품제작, 직인제작보다는 대량생산, 기계생산에 중점을 둔 스타일이었다. 이 아르데코의 양식의 변화가 아르데코 패션을 만들었고 이는 곧 바로 20년대 기능주의적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모던한 20년대 의상을 창조케 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허리와 가슴의 곡선미는 사라지고 일직선으로 떨어지며 머리는 남성의 헤어 스타일과 비슷하게 매우 짧아지고 컬(curl)이나 웨이브(wave)는 금단, 그리고 코르셋 대신 몸통을 평면화 시키는 플레프(flapper)가 등장했다. 그러나 인체의 선이 완전히 평면이 되지는 못했고 볼륨감이 많이 줄어들도록 노력하였다. 동시에 스커트트의 길이는 무릎정도까지 짧아지게 되어 그 시대의 요구였던 자유로움과 활동성을 부여하였고 그에 따라 길고 세련된 다리가 각광을 받았다. 형태는 직선형으로 단순화 시키고 평상복의 색상은 베이지,

브라운, 그레이, 흑과 백의 색채를 주로 사용하여 침착한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찰스시대의 파티를 위한 드레스나 상류층 사람들의 사교모임에는 형태의 단순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화려한 직물과 표면장식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복식의 단순성을 값싼 인조보석, 빛나는 장식버튼, 그리고 화려한 디자인의 라펠핀등을 사용하여 필요한 장식을 가미하여 보완하였다.

당시 건축과 산업디자인계는 기계생산, 대량생산 시스템에 적합한 즉 과거의 꾸밈과 장식을 거부하고 간결성, 질서와 합리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스타일 창조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시기였다. 일상생활용품, 인테리어.건축등에 나타난 기능적인 스타일의 단순성이 20년대 패션의 단순성과 거의 일치되는 형태로 나타났으므로 일반대중들에게 확산되는데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단순한 디자인은 시대의 대세였던 대량생산에 적합한 형태였으므로 여기저기서 복사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구미 전지역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다.

## 2. 포스트모던 복식

후기 자본주의 체제내에서 대량소비시대의 경제는 개인의 필요와 새로움에 대한 욕망, 남과 다른 차별성과 즉각적 만족 등을 창조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포스트모던 시대의 경제논리에 아주 잘 적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패션은 부각되고 있다. 하나의 큰 유행의 흐름 속에 자신들을 맞춰야 했던 시기에서 각자의 개성에 맞는 끝없는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해야 하는 시기의 패션은 무한한 스타일의 혼재를 용납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을 생산해 내는 기업가나 소비자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좋은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하에서 디자이너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여러가지 요구들을 동시에 도입하게 됨으로써 패션에 다원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패션에는 어떤 규칙도 없이 어느시대의 어떤 스타일이 복합되었는지도 모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이 표출되었다. 이러한 시대의

복식에 대한 관심은 '지식에서 경험으로', '이론에서 실제로' '마음에서 몸으로' 변천하는 등 지식의 강조에서 존재의 강조로 가는 포스트모더니즘적인 변천과 일치한다.<sup>15)</sup>

이러한 패션의 변화 양상 중 본 연구에서는 성을 상품화하려는 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 육체를 중시하는 경향을 인체의 곡선강조, 노출, 속옷의 겹옷화 현상등과 연관시켜 살펴보고 모더니즘시대 타자로 소외되었던 특정 하위집단의 반패션 또는 저항패션의 대중화현상 또는 하이패션으로 도입에 관한 현상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기존 전통을 파괴하려는 해체주의 양상이 패션에 도입된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Silverman, Kaja는 우리들이 일상생활에 착용하는 의상은 개개인의 주관에 대한 필요조건이고 신체를 표현함과 동시에 인간정신을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sup>16)</sup> Wilson은 '의상은 인체를 위한 문화적인 유품이고, 인체의 재현을 우리의 문화적 맥락으로 서술하거나 묘사하는 소재다' 라고 언급하였다.<sup>17)</sup> 이성과 지식, 본질적인 가치등 형이상학적인 기준을 중시하던 모더니즘관에서 육체와 물질적인 것의 가치를 더욱 중시여기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육체는 성의 상품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이 부각되기 시작한 80년대부터 여성의 실루엣은 점차로 슬림(slim)해지기 시작하면서 90년대 부터는 슬림한 전체 실루엣에 신체의 가장 은밀한 곳을 제외한 인체 각 부위의 과도한 노출, 몸에 밀착된 복식에 의한 Body Conscious Line 의 과장 등으로 패션계는 에로틱한 분위기를 창출하여 성적자극의 도구로 여성의 인체를 사용하고 있는 듯하다. 젊은이들이 새로운 소비계층을 형성하여 그들이 그동안 기성세대의 스타일을 답습하면서 억압되었던 성적욕구가 분출하면서 패션 이미지는 과도할 정도로 성적인 것에 집착하는 경향도 보였다. 옷은 노출이 심하며 catwalk상에서 모델들의 포즈는 외설적이고 분위기는 레즈비어리즘(lesbeanism) 새디즘(sadism)의 기분이 감돈다.<sup>18)</sup>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중반경부터 한국 젊은이들의 패션에도 유입되어 동양인

으로서 전반적으로 풍만하지 못한 유방의 볼륨을 높이기 위하여 두꺼운 스폰지 브래지어의 사용이 현저히 늘어났다. 그리고 하체의 곡선을 살리기 위하여 스판덱스가 혼용된 신축성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아주 통이 좁은 일자형 바지(straight pants) 혹은 팬타롱(pantalon)이 유행하고 있다. 이런 신축성 있는 소재는 몸에 딱 끼는 디자인 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으로 전혀 운동 및 활동성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인체의 곡선을 잘 살려 현재의 패션을 잘 반영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에로티시즘을 주제로 하는 또 하나의 경향은 속옷의 겹옷화 현상이다. 최근 몇 년사이 봄·여름 콜렉션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슬립드레스(slip dress), 란제리 룩(lingerie look)의 유행은 보여서는 안되는 속옷이 일반대중의 거리패션으로 부각되어 젊은 계층에서 착용되어지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하이패션과 하위문화 패션은 전례없이 가까워졌는데 60-70년대 나타난 sub-cultural group들 즉 히피(Hippy), 펑크(Punk), 테디보이(Teddy-Boy), 모즈(Mods), 그리고 스킨 헤드(Skin Head)집단들의 Anti-fashion 내지는 기존의 복식 형태 및 착장방법 등의 파괴를 보여줌으로써 기성세대에 반발하는 그들의 정신을 표현하려 했던 즉 지배문화에 저항하는 것을 근본정신으로 한 혐오스러운 복식요소들이 80년대 이후 특히 90년대 들면서 부터 하이패션에 나타나 하나의 스타일을 이루고 젊은이들은 이 유행을 추종함으로써 대중화 되어졌다. 70년대 Punk group이 보여주었던 옷을 찢고 머리를 부분적으로 밀어버리고 귀를 뚫고 징을 박고함으로써 기존의 지배세력에 충격과 경악을 줌으로써 그들의 욕구를 해소하려 했던 이런 요소들이 이제 서양문화를 이루는 주류 패션에 경멸의 대상이 아닌 "새로움"의 출처로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sup>19)</sup>

자크 데리다(Jaque Darrida)의 해체주의 선언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적 개념과 함께 건축, 산업 디자인, 시각디자인 등 조형예술분야에 어떤 일관된 설명을 부여하기 곤란할 정도로 해체의 개념은 다양하게 적용되었다. 복식에 나타난 해

체주의 경향을 김주영, 양숙희<sup>20)</sup>와 김지연, 전해정<sup>21)</sup>의 연구에 나타난 결과 중 대표적인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복식의 겉옷을 제거, 역전시키고, 란제리, 심지, 안감, 솔기 등 구성법을 노출시킴으로써 외부로 부터 해체된 현상이라 할 수 있는 노출적 해체(Disclosure), 의복의 형태와 구조를 파괴하여 충격효과와 긴장감을 주는 파괴적 해체(Destruction), 빈곤해 보이는 디자인 요소 및 디테일 트리밍 즉 패치워크(patch work), 탈색 및 염색, 페이딩(fading), 프링징(fringing), 미완성과 핸드메이드(hand made)를 선택하여 가난한 것 같은 혹은 거지 같은 인상을 보여주는 빈곤적 해체(Poverty), 그리고 의복구성 요소를 통합시킴으로써 의복의 층과 구조를 노출시키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파괴하여 복식에 있어서 서로 다른 영역들의 복합체로 만드는 분해적(Analysis)해체등이 있다.

## IV. 고딕, 르네상스의 시대적 배경

### 1. 고딕시대

중세 크리스티교는 유럽문명과 종교와의 관계를 매우 깊은 것으로 만들었으며 크리스티교의 요소들을 생각하지 않고는 중세유럽 역사에 있어서 인간의 활동분야 즉, 예술, 문학, 사상 등은 논할수 없을 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고딕시대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더욱 신에 대한 존경심과 영광을 드러내려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로 대부분의 조형물들은 수직적 형태를 강조하게 되었다. 또한 크리스티교 사상은 영의 세계를 강조하여 육체와 현실의 세속적 삶에 대한 태도는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중세인은 각별히 힘든 삶을 살았다

9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어 10~12세기의 유럽 전체를 특징짓는 요소가 된 봉건제도는 13~14세기 도시의 번성으로 점차로 그 지배력을 상실하기 시작한다.<sup>22)</sup> 중세도시의 번성에는 두가지 요인이 작용했는데 첫째는 12~13세기에 걸

친 인구의 증가로 경작할 땅이 없어진 농촌의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면서 도시는 더욱 팽창하게 되었으며 둘째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한 상공업의 활성화가 도시를 확대시킨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sup>23)</sup>

상거래에 의해 부를 축적한 도시의 상인들은 봉건귀족과 동등한 생활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예술계에서는 귀족, 수도승과 함께 또 다른 예술 후원자로서 자리를 굳히게 되면서 종래의 기독교적 미술의 성격이 인간중심의 르네상스 풍으로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sup>24)</sup> 중세말기는 성지의 그 주변지역을 종교적인 이름으로 탈취 보존할 목적으로 일으킨 군사식민 운동이라 할 수 있는 십자군 운동의 영향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sup>25)</sup> 비록 십자군 원정은 성지를 회복하지도 크리스티교의 통합도 이루지 못하였으나 원정으로 인하여 아시아와 유럽간의 새로운 문화접촉을 가능케 했으며 근세 자본주의의 발달, 시민계급의 발흥, 군주국의 세력 신장과 같은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sup>26)</sup>

고딕예술양식은 프랑스에서 형성되어 전 유럽세계에 확산되었으며 먼저 종교와 연결된 사원과 교회당의 건축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었고 점차로 도시의 공공건물, 귀족의 저택, 가구, 공예품, 장신구등의 모든 조형물에 영향을 미쳤다. 고딕양식의 전반적 특징은 지상적인 안정감보다는 하늘에 대한 숭배심을 나타내기 위해 수직성을 강조하여 길이중심의 형태를 이룬 것이었다.

### 2. 르네상스시대

르네상스시대 사상의 토대가 되었던 주된 변화는 중세시대 신의 피조물이라 간주했던 인간과 자연에 대한 새로운 존중심과 함께 신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천사 다음으로 뛰어난 존재로 인식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사고의 영향으로 르네상스인은 현실세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현재의 생을 찬미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찬양하고 인간자체를 고유의 가치와 원리를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육체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예술가들에 의해 시각적으로 묘사되면서 르네상스사회는 점차 세속화 되어갔다.<sup>27)</sup>

르네상스시기는 중세의 암흑기를 벗어나 찬란했던 그리스 로마 문화를 계승하고자 파문혀 있던 고전기의 정신적 가치들과 고전적 예술을 부활시킨 시기이기도 하다. 고전고대의 학문, 문학, 미술이 일세를 풍미하였고 학자들은 이에 자극을 받아 더욱 발전시켰으며 부자들은 고전고대의 모범이 보여주는 삶의 방식을 본받으려 노력했었다.<sup>28)</sup>

르네상스가 꽃피게 된 이면에는 고딕시대부터 시작된 상업의 발달과 그로 인한 막대한 부의 축적 및 도시발달이 크게 작용하였다. 도시를 중심으로 한 상공업의 발달은 시민계급을 등장하게 하여 오랜세월동안 지속되던 계급이 분해되면서 개개인의 자각심을 일으키게 하여 현세를 잘 살려는 의욕을 증진시키면서 시민문화가 초래되었다.<sup>29)</sup>

예술분야에서 르네상스 예술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 것도 상업으로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 계급의 적극적인 후원이었다. 세속적인 경향이 시간이 갈수록 확고해짐에 따라 예술 역시 종교의 봉사적 영역에서 상당히 벗어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예술은 성경의 줄거리가 아닌 인간적인 주제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자연과 인체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sup>30)</sup>

## V. 고딕·르네상스시대 복식의 특징

### 1. 고딕시대 복식

고딕시대는 기독교적인 종교의 영향으로 금욕을 강조하면서 육체를 부정하는 경향으로 복식속에 감추어 두었던 인체의 곡선을, 재봉기술의 발달로 밀착된 의복이 출현하면서 서서히 드러내는 시기였다. 다음 시기인 르네상스시대처럼 과도하게 인체 곡선을 강조하지는 않지만

가슴과 허리와 엉덩이의 곡선이 조금씩 나타났다. 종교적인 감정은 색채에 상징성을 부여하여 색이 가진 의미에 따라 조화되도록 복식의 색 배합을 하였다.<sup>31)</sup>

십자군 전쟁으로 인한 동방과의 교류에 의해 화려한 면직물과 은사로 수놓은 자수, 보석등을 복식에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십자군 전쟁의 또 다른 영향은 각 가문의 상징인 문장(heraldry)의 사용인데 평상시의 복장에도 적용되어 장식과 신분상징의 구실을 했다. 이로 인하여 디테일이나 트리밍 또는 형태면에서의 장식적인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던 여성의 꼬뜨(cotte) 나 꼬따르디(cotardie)같은 복식의 앞, 뒷길을 등분하여 문장의 표시인 양식화된 문양을 이용하여 표면장식을 하였다.

고딕양식의 영향으로 나타난 첨두적 외관은 복식에 그대로 영향을 주어 전체적으로 길고 흐르는 듯한 실루엣이나 앞이 뾰족한 구두, 높고 뾰족한 모자, 소매나 옷단의 톱니모양은 모두 이러한 예각적 감각을 반영하고 있다.

고딕시대는 시민이 문화의 기수로서 사회생활에서 부르주와와 함께 문화를 구축해 나갔던 시대로서 이는 당시의 복장에 귀족성뿐 만 아니라 시민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sup>32)</sup>

종래의 정적인 생활이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이동성과 활동성이 있는 생활형태로 바뀌자 복식도 합리적인 형태를 추구하여 로마네스크 시대의 블리오와 같이 소매가 땅에 끌리는 등의 불합리한 의상형태는 사라지고 꼬뜨와 같은 편리한 원피스 드레스 형태가 나타났다.<sup>33)</sup> 또한 14세기에 이르러서는 간단하게 두르는 혈령한 형태의 옷들이 사라지고 그 대신 몸에 꼭 맞는 옷들이 등장했다.<sup>34)</sup>

이 시대 미술작품이나 필사본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여성의 인체는 대체적으로 마른형으로 나타난다. 재단, 재봉의 기술로 인체의 곡선을 살리기는 했으나 여전히 종교적인 영향으로 적은 가슴을 선호하는 경향<sup>35)</sup>이 두드러져 전체적인 실루엣은 슬림(Slim)하면서 길게 흐르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런 가늘고 긴 인체를 선호한 이유를

Scott은 그의 저서 *The History of Dress*에서 “성냥개비같은 몸, 하늘나라에서 사는데 적합한 아주 축복받은 자의 가벼움”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sup>36)</sup> 또한 Eustache Deschamps의 시에서도 조그만 둥근 가슴, 길고 가는 팔, 가느다란 다리, 길고 날씬한 몸통, 좁은 허리등으로 마른체형에 대한 찬미를 하였고 뚱뚱한 것은 추한 것으로 묘사하였다.<sup>37)</sup>

## 2. 르네상스시대 복식

새로운 미의 가치관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조형물의 형태도 변하게 되는데 건축에서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지만 가던 길이중심의 외관에서 그리스 로마시대의 웅장함과 육중함이 느껴지는 넓이 중심의 외관으로 변해가면서 패션도 중세의 가늘고 길게 흐르는 듯한 세로라인에서 가로라인을 중시하는 패션으로 서서히 바뀌어간다.

금욕적인 중세의 세계관에서는 육체란 불사의 영혼을 둘러싼 외피에 지나지 않으며 송충이나 구더기를 위한 먹이에 불과한 하찮은 것이라고 천시하던 관념에서 인간이 모든 사물의 중심이자 척도라고 하는 인간자신에 대해 자각과 함께 육체를 다시금 인식하게 되면서 점차로 존중하게 되었다.<sup>38), 39)</sup> 그리고 그리이스 로마의 문헌을 연구하며 거기에서 자연과 인체미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해 나갔다. 자연과 인간존중이라는 르네상스의 가장 큰 이념이 육체를 존중시키는 새로운 인식으로 바뀌면서 에로틱한 요소들이 복식에 나타나게 된다. 자연스런 인체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여성의 가슴곡선을 살리고 테팔떼를 유행시켜 가슴노출을 확대하고 허리는 코르셋으로 최대한 조아서 가늘게 만들고 엉덩이 곡선을 살리기 위해서 스커트속에 페티코트류를 착용하여 넓게 확대시킨 형태가 유행하게 되었다. 남자복식에 있어서도 남성의 권위와 육체미를 복식에 반영하기 위해서 어깨를 넓게 보이도록 디자인 하여 어깨부터 가슴부분에 패드를 가득 넣어서 어깨가 벌어지고 가슴이 넓은 늠름한 남성상을 연출하는데 열중했다.

에루아르트 폭스는 그의 저서에서 르네상스시대를 창조의 시대로 규정짓고 창조의 시대에는 에로틱한 관능으로 충만되는데 이 에로틱한 관능이라는 것은 육체를 통하여 드러내는 것이며 이 관능은 자연적인 것으로 간주했다.<sup>40)</sup> 이러한 자연적인 것이 미화됨에 따라 처음에는 고대의 인체미를 찬양하며 자연스런 인체곡선미를 추구하다가 이러한 경향이 하나의 패션으로 확립되면서 귀족과 신봉계급의 부유계층의 사람들에 의해 과장되어 인체가 변형, 왜곡되는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르네상스복식에 나타난 특징있는 새로운 디자인은 슬래쉬(slash) 패션이다. 겹옷에 가위로 절개를 넣던가 달군봉으로 구멍을 뚫어 그 잘린 곳에 부드러운 속옷의 천이 보이도록 하던지 아니면 각각각색의 직물을 대어 장식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어깨와 소매 붙이는 곳, 팔꿈치, 무릎 등 관절부분에 절개를 넣어 움직임의 자유롭게 하는 실용성 및 기능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했으나 유행이 되면서 과잉장식으로 이어져 온통 복식이 슬래쉬 투성이의 난잡한 형태를 이루었다. 이 슬래쉬는 스위스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칼자국이 났거나 낡아서 헤어진 구멍을 천을 대어 수선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sup>41), 42)</sup> 이 슬래쉬 패션은 독일에서 가장 유행하여 유럽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이 슬래쉬 패션은 처음에 단순히 칼집을 내어 배치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자형, 별모양, 꽃모양, 가로, 세로, 사선, Z자뜨기 식의 여러형태가 생겼으며 너무 심하게 유행하여 이를 금기시키는 규제가 생기기도 하였다.<sup>43)</sup>

남성패션 중 양말이 변형되어 르네상스시대에 와서 바지의 형태를 이룬 것을 오 드 쇼오스(haut de chausses), 브리치(breeches) 그리고 양말 또는 스타킹의 형태는 바 드 쇼오스(bas de chausses), 호즈(hose)라고 했다. 이러한 패션에서 특징적인 것은 색이 화려하고 무늬를 넣기도 하였으며 좌우다리의 색을 달리하거나 슬래쉬등 장식디자인도 다르게 하여 두 다리가 자주 다른 형태로 보이게도 했다. 이러한 언밸런스(unbalance)한 좌우, 상하 대조적인 색차를



이용한 패션은 특히 독일에서 더욱 성행하였으나 다른 나라로 점차 퍼져나가기도 하였다. 이러한 반바지 패션과 함께 유행한 것이 양말의 분리된 다리 사이로 나타난 곳을 가리기 위해 덧붙인 코드피스(cod-piece)로 이는 실용적 목적에서 생겨났지만 바지의 다양한 유행과 함께 크기도 확대되고 의장에 맞추어 패드를 넣고 장식을 하여 전체복장의 초점이 되었을 정도로 화려하게 변했다.

## VI. 모던·고딕시대 복식과 포스트모던·르네상스시대 복식에 나타난 유사성

### 1. 모던·고딕시대 복식의 유사성

모던복식과 고딕시대 복식의 유사성의 비교, 고찰은 복식스타일에 영향을 미친 중세미학과 종교관 그리고 모더니즘적 사고관을 간략히 언급하고 이에 따른 인체에 대한 미의식, 활동성이 부여된 기능적 복식, 대중화 경향, 장식배제 경향등으로 요약하여 살펴보았다.

중세 미학은 고대철학과 미론을 비판적으로 섭취하여 기독교 사상과 융합시켜 발전시키는데 자연과 예술의 구상적인 미는 그것 자체는 불완전하며 그 근원을 이루는 이성적이고 정신적인 미를 영원불변하는 미로 보는 아우구스티누스(A. Augustinus, 354-430)의 견해, 가시적인 미는 주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감각으로 파악되는 거짓된 미와 이성으로 파악되는 참된 미로 구분한 에리우게나(J. Eriugena, 810-877)의 견해로 이어져 13세기 스펀라 철학의 전성시대에 오면서 이성과 본질을 강조하는 기존의 관념에 종교적 색채와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다.<sup>43)</sup> 이러한 철학사상의 영향으로 고딕시대는 본질적으로 직관 및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시하는 합리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신을 향한 복종과 충성만이 그들의 현세의 고통스런 삶에서 구원하여 이상세계로 이

끌어주는 원동력이 되리라 믿었던 시기였다. 따라서 고딕시대는 개인의 현실적 삶과 육체적인 것은 무시되고 신 중심의 사고로 가득차 정신적이며 영적인 가치가 궁극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위대한 신앙의 시기였다.<sup>45)</sup>

중세미학에서 나타났던 이성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경향은 모더니즘양식이 추구했던 관념과 공통점을 가진다. 또한 모더니즘 양식은 하나의 통일된 양식만이 시대적 이상향을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직선적이고 기하학적인 단순하고 본질적인 형태를 추구하여 장식이 배제된 경향의 조형물을 창조하였다.

1) 인체에 대한 미의식: 중세시대 기독교와 금욕주의적인 경향은 인체에 대한 굴욕감과 수치심을 불러일으켜, 자연적인 인체의 곡선, 즉 가슴, 허리, 엉덩이의 곡선을 강조하여 여성의 에로틱한 면을 강조한 부각시켰던 다른 시대와는 달리, 자연스런 인체의 곡선이 잘 나타나지 않는 마른 체형을 선호하였으며 육체미의 형상을 철저히 근절시켰다. 그 시대 마른체형은 하늘나라에서 살기에 적합한 축복받은 자들의 가벼움으로 묘사되었고 이러한 종교적 이유와 함께 수평보다는 수직을, 넓이보다는 길이를 선호한 그 시대 예술양식의 경향을 반영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모던시대에는 기능적인 모더니즘의 경향으로 대부분의 조형물이 직선적이며 장식이 배제된 단순한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복식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였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의복이 입혀지는 인체는 그 복식 실루엣을 따르는 경향으로 변화하게 된다. 당시 여성들은 플래퍼(flapper)라는 몸을 납작하게 하는 코르셋을 착용하여 허리와 가슴의 곡선미를 무시하고, 몸통을 평면적으로 보이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평면적인 체형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몸의 곡선이 잘 드러나지 않는 빈약한 체형이 적합하였으므로 20년대는 마른체형이 선호되었다.

2) 활동성이 부여된 기능적 복식: 고딕 시대에는 종래의 정적인 생활이 상공업의 발달 등으로 시대가 급변함에 따라 이에 적응하기 위

해 이동성과 활동성이 있는 생활형태로 바뀌면서 복식도 가급적 활동에 지장을 적게 주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형태를 추구하여 전 시대의 블리오(Bliaud)와 같은 소매가 땅에 끌리는 등의 불합리한 의상형태는 사라지고 합리적이고 편리한 원피스드레스(그림1, 2)형태가 나타났다. 상류층이 아닌 평민계층이 착용한 꼬뜨는 직물의 무늬가 없이 단색의 단조로운 형태로 이루어지고 노동을 할 때는 치마를 약간 올려 허리에서 묶어 치마를 약간 짧게 하기도 했다.



<그림 1> 꼬뜨(Cotte)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1998, p.146



<그림 2> 문장(Heraldry)을 넣은  
꼬따르디(Cotehardie)

이정옥 외 2인, 서양복식사, 형설출판사,  
1987, p.130

제 1 차 세계대전후의 여성패션은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회인으로서의 현실생활을 추구하는 기능주의적인 면과 보다 합리적인 미를 추구하려는 대중의 요구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스타일의 창조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필요와 함께 그 당시의 예술양식도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에 적합한 직선적이고 기하학적인 단순한 형태의 모던 스타일이 20년대의 복식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납작하고 작은 가슴, 가냘픈 몸매의 작은 체구에 적합한 아주 슬림(slim)한 스타일의 출현 (그림 3)은 위에서 언급한 두 요건을 만족시켜 줌으로써 재빨리 확산 되었다. 평상복이나 사무복에서는 아주 기능적인 면을 강조하여 실용성있는 소재와 무채색계열의 모던한 색채가 사용되어 그 시대의 모던한 사고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3> Home Sewing용 원피스, 1928년  
허준, 파리모드 200년, 유림 문화사, 1992년,  
p149

3) 대중화 경향: 고딕시대는 시민이 문화의  
기수로서 부르주와와 함께 문화를 구축해 나

갔던 시대로서 이는 당시의 복장에 귀족성과 시민성이 강하게 나타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시민성의 영향으로 꼬뜨와 같이 단순한 의복이 나타났다.

20년대에는 대중생산, 대중소비, 그리고 대중매체 등의 대중의 시대가 도래된 시기였다. 20년대 이전의 비활동적인 복식의 유행이 주로 상류층에 국한되어 먼저 확산된 것과는 달리 스타일의 단순성과 활동성 등의 기능성이 부여된 20년대 복식은 대중들도 함께 유행복식을 즐길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4) 장식배제 경향: 고딕시대에는 귀족복식의 소재에 나타난 표면장식을 제외하고는 디테일 트리밍, 또는 보석류 등의 장식적인 요소가 나타나지 않았고 단순한 실루엣을 보여준다. 유연한 주름선에 의해 입체의 볼륨이 감지되는 소극적인 의미의 노출에서 고딕시대에 오면서 예술에서 보이는 구조의 단순성, 단아한 정신성이 의복에서는 비례나 단순함으로 나타났고 의복형태상의 변형이나 장식적 디테일보다는 의복의 선을 중요시 하였다.<sup>46)</sup> 이와 같이 복식에서의 단순성, 조화 그리고 균형이 강조된 시기는 고전적 고딕 시기인 13세기에 절정에 이르렀는데<sup>47)</sup> 이런 형태는 꼬뜨(그림 1)나 꼬따르디(그림 2)의 슬림(Slim)한 라인의 장식적 디테일이 배제된 단순한 의복스타일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고딕후기로 가면서 르네상스적 기운이 싹트면서 장식적인 경향이 귀족들의 의의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모던시대에도 형태면에서는 직선적 실루엣을 선호하여 가급적 디테일이나 트리밍의 사용을 자제해 장식배제 경향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재즈시대의 음악과 춤이 난무하던 광기의 20년대 파티복이나 이브닝드레스에서는 형태와 실루엣은 단순하지만 금, 은사를 넣어 자수하거나 표면장식이 많은 사치스러운 직물의 이용, 인조 보석류를 사용하여 형태적 단순함을 보완하여 화려한 느낌의 파티 분위기를 연출하는 복식(그림 4)도 나타났다.



〈그림 4〉 이브닝 드레스, 1926년  
허 준, 파리모드 200년, 유림문화사, 1992,  
p.155

## 2. 포스트모던 · 르네상스시대 복식의 유사성

포스트모던 복식과 르네상스 복식의 유사성은 첫째, 인체에 대한 미의식의 변화 둘째, 복고주의 패션 셋째, 소수집단 패션의 대중화 넷째, 해체주의 패션 다섯째, 장식선호경향 등으로 요약하여 살펴볼 수 있겠다.

1)인체에 대한 미의식의 변화: 각 시대, 각 사회는 자기자신을 철학, 과학, 법률체계, 문학, 예술, 생활규칙 특히 육체관은 아름다움의 어느 한 법칙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이상형으로까지 높아지는 하나의 유형을 만들어, 모든 사람이 그 형태를 따르도록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sup>48)</sup> 따라서 르네상스는 관능적인 육체가 이상적인 유형이 되었으며 그 이상적 유형이라는 것은 이성에게 격한 성적욕망을 도발하는데 적합한 인체를 표현하는 것이었다.<sup>49)</sup> 이러한 인체에 관한 미의식의 변화에 따라 고딕시대의 가냘프고 인체곡선을 거의 드러내지 않던 실루엣에서 볼록한 유방, 가는 허리, 큰 엉덩이를 강조하는 실루엣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르네상스시대 초기에는 자연적인 인체선을 살리면서 상의의

목둘레를 깊이 파서 가슴을 노출시키고 허리를 인체선과 동일하게 벨트나 끈으로 조이고 스커트의 주름이나 개더로 엉덩이 선이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형태를 유지했으나 귀족들의 사치풍조가 늘어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점차 복식을 이용하여 인체를 변형시키며 아주 과장된 모습으로까지 변모시켰다. 여성들은 패드를 넣어 가슴을 더욱 크게 보이도록 하였고 코르셋을 이용하여 허리를 극도로 조았으며 패티코트를 이용하여 스커트를 펼칠 수 있을만큼 확대시켰고 남성들은 패드를 사용하여 어깨와 가슴을 넓게하여 남성다운 변모를 과시하였다.

20세기 후반 세계 정치 구도의 변화에 따른 불안감, 버블경제의 붕괴에 따른 경제적인 위축과 다음세기에의 기대감 환경파괴에 따른 정신적인 긴장감 고조 등 정신과 물질이 분할되어 가치관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에서 기존의 가치관에 대한 회의의 현실에의 불만족등이 좀더 자극적인 패션을 추구하게 되고 자기만의 개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기업은 성을 상품화하여 신체노출을 확대시키고 기존문화에 대한 반동은 여러면에서 착장의 변혁을 가져왔고 다양한 신소재의 개발은 새로운 성적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스타일을 채택하였다.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여성의 신체는 상품화의 도구가 된 것처럼 모든 패션은 앞 다투어 여성의 인체 곡선을 강조하고 인체를 노출하는데 전심전력하였던 것 같아 보였다. 브래지어나 코르셋을 걸뒀화하여 착용시키고 어깨와 대부분의 가슴, 등, 배꼽, 다리 등 가장 은밀한 부분을 제외한 여성신체의 모든 부분을 노출시켰으며 see-through패션을 유행시켜 보일 듯 말듯 비치는 소재안에서의 매력적인 인체선을 강조하였고 스판덱스 소재의 사용으로 body conscious line의 밀착된 스타일의 유행으로 아주 성적으로 도발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패션을 확산시켰다.

2) 복고주의 패션: 르네상스는 중세를 암흑시대로 비유하면서 그 이전시대인 그리이스, 로마시대의 문화를 최고의 것으로 규정하고 모든 사고나 생활방식 등의 정신적인 것에서부터 건축, 예술, 생활품에 이르기까지 고전기의 것을

발굴하여 이론을 체계화 시키고 조형물들을 모방하고자 하였다. 복식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여성복식에 있어서 복식의 형태가 아주 직선적이고 볼륨감이 없었던 형태에서 고전기의 얇고 부드러운 소재에 의해 흘러내리던 자연적인 주름을 형성하는 경향으로 변해갔다. 중세말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재단, 재봉 기술의 발달로 상의는 입체적으로 봉제된 상태로 몸에 맞는 형태로 상체의 곡선을 자연스럽게 살려주고 허리에서 주름을 주던지 벨트로 폭넓은 스커트를 조이므로서 자연스런 주름(개더)이 형성되도록 하였으며 목둘레, 소매끝, 허리선 등에 고전기의 것과 비슷한 문양이 들어간 선을 댄 복식<그림 5>이 출현하기로 하였다. 이런 경향은 르네상스 초기 복식에 주로 나타나며 르네상스 성기로 갈수록 복식은 곡선을 강조하고 위엄감을 주기 위해 무거운 소재로 실루엣은 경직되고 볼륨감 있게 변했다.



〈그림 5〉 Ferrarese School:  
The Betrothal, 1470  
Francois Boucher, A History of Costume

포스트모던 시대에 새로운 창조는 더 이상 없다는 사고 아래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양식을 모방하는 절충주의 경향이 팽배해지면서 예술작품이나 디자인 작품 등에도 복고풍 디자인이 유행하게 되었다. 오늘날 인간중심적인 시대

적 사고는 내면의 진실한 욕구를 표현하도록 하는데 복식에 있어서 과거의 도입은 이러한 개인의 표현력 창출에 자유로움과 만족을 주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sup>50)</sup>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80년대는 새로운 디자인의 영감원으로써 과거의 복식이미지를 도입하여 발표되었으나 대중화되지 않은 시기였고 90년대에는 패러디를 통한 과거의 이미지의 재조명이나 과거 이미지의 혼성모방 등으로 다양한 스타일의 복고주의 패션들이 선보이고 유행하여 일반 대중의 패션속에 침투하였다. <그림 6>은 그리스시대 여성복식의 특징을 모방한 드레스이다.



<그림 6> Emporio Armani 작품  
정삼호, 현대패션모드, p.208.  
in the West, p.124

3) 소수집단 패션의 대중화: 르네상스 시대의 슬래쉬 패션<그림 7>은 그 당시로서는 사상유래없는 특이한 장식으로서 시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특징적요소가 되었다. 십자군원정을 나간 군사들에 의해 유래된 슬래쉬가 일반인들에게 받아 들여지면서 이는 유럽전역으로 퍼져 패션으로서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다. 슬래쉬 패션이 점차로 확산됨에 따라 과잉장식의 경향과 함께 극도의 사치 풍조를 조장하였으므로 필요에 의해 사용해야만 하는 군인 집단을 제외하고는 일반인들은 사용을 금지하

는 제도까지 만들기에 이르렀었다.

포스트모던한 사고가 일기 시작한 60년대는 예술계에서 뿐만아니라 패션계에서도 주 소비층이 기성세대에서 젊은세대로 변하면서 기존 사회에 저항하기 위한 집단들 즉 sub-cultural group들에 의해 이러한 패션(Anti-fashion이라고 함)이 등장한다. 찢고 뚫고<그림 8> 말아입고 바랜듯한 염색을 이용하기도 하고 피부에 구멍을 내어 장식을 하기도 하고 머리를 대부분 깎고 부분부분 남긴 스킨헤드(skin head) 히피(hippy), 펑크(punk) 집단들의 기상천외한 패션은 60-70년대는 놀람과 충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풍조가 80-90년대 오면서 점차로 하이패션에 도입되기도 하고 일반화 대중화 되면서 Anti-fashion이 아닌 시장(Market)에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인기있는 패션으로 정착되었다. 이렇듯 어떤 소수집단의 필요에 의해 생긴 유행요소가 하나의 패션을 이루고 대중화 된 사례가 르네상스시대와 포스트모던시대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림 7> 르네상스시대 슬래쉬 장식  
Francios Boucher, A History of Costume



〈그림 8〉 90년대 슬래쉬 장식  
정삼호, 현대패션모드, p.203.  
in the West, p.238

(Avant-Garde)한 스타일 등 옷에 대한 기존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무시한 충격적이며 불쾌하기까지한 작품을 발표하였다.



〈그림 9〉 Kawakubo Rei 작품  
94·95 A/W collections 가재창,  
패션디자이너, p.87.

4) 해체주의 경향: 20세기 후반기 패션에서 찢기, 오리기, 구멍 뚫기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을 포함해 휴지처럼 구겨지거나 휴지조각같은 소재를 사용하는 것, 낡고바랜 듯한 효과를 내는 것 찢거나 오려내는 것 여러 가지 형태의 파괴적 해체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해체패션은 전통적 예절과 실용성을 거부하는 동시에 만든다는 긍정적 평가와 파괴한다는 부정적 평가 사이에 불명료함을 제시함으로써 은폐와 노출의 양면가치와 함께 완성과 미완성 사이에서 미적 고정관념을 해체한다. 그리고 꿈데 가르송(comme de Garçons)의가와구보레이(Kawakubo Rei)는 인체의 곡선을 무시하고 창작방법을 무시한 기상천외한 스타일을 많이 발표하여 패션계를 놀라게 하였다. 상·하의를 바꿔 착용하는 방식, 천을 들들 말아서 옷의 곳곳에 구멍이가 기어가는 듯한 아주 그로테스크한 모습<그림 9>을 연출하는가 하면 소매, 몸통, 스커트의 경계가 애매모호한 아방가르드

르네상스시대에 나타난 해체적 경향은 앞서 언급한 슬래쉬패션 외에도 패드와 코르셋 그리고 과장된 스커트 버팀대 등을 이용한 인체곡선의 왜곡 및 변형이다. 르네상스 초기 자연스러운 인체 곡선을 선호하던 사상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강조하기 위하여 여성은 가슴, 허리, 엉덩이의 곡선을 최대한 강조하기 위하여 가슴엔 패드를 넣어 볼륨감을 살리고 코르셋을 사용하여 허리를 극도로 조이고 베르쥬가당(Vertugadin), 파이팅게일(Fartingale), 오스퀴(Haussecul) 같은 스커트 버팀대로 치장한 왕족과 귀족의 모습은 패드를 넣은 퍼프 슬리브(Puff sleeves)와 함께 도저히 움직일수도 없을 것 같은 우스꽝스런 형태를 만들어냈다.<그림 10> 남성복에 있어서도 남성스러운 위엄을 강조하기 위하여 어깨와 가슴부분에 패드를 집어 넣어 거대하게 만들고 하의는 스타킹을 신어 훌훌하게 만들어 상체가 무거워 넘어질 것 같은 그로테스크한 외형을 만들어 내었다.<그림 11>



〈그림 10〉 Elizabeth I, 1592.  
패션의 역사, 라사라, p.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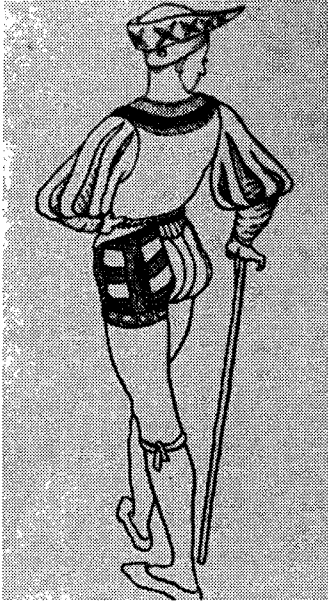
남성복에 있어서 또 하나의 해체주의 경향이 나타난 곳은 남성의 성기부분의 장식인 코드피스(cod-piece)에서 보여진다. 몸에 밀착된 쇼오스를 착용하면서 은폐의 주요부분이던 남성성기 부분을 가리기 위해 착용되었던 코드피스가 유행이 되면서 과도한 장식을 하기도 하고 크기도 확대되어졌다.〈그림 12〉 이런 의외성의 복식이 유행하게 되어 일반화 하게 된 것은 현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 해체주의 경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남성복식에 나타난 또 다른 전형적 규범을 해체하는 패션은 특히 독일에서 유행했던 좌우 다리색을 달리하고 슬래쉬등 장식 디자인도 다르게 하는 언밸런스(unbalance) 의장 <그림 13>의 유행이다.<sup>51)</sup> 그 당시까지 관념으로 하의의 좌우는 같아야 한다는 것이 고정관념이었는데 이러한 언발란스한 패션은 당시로서는 놀라운 발상이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림 11〉 Henry VIII, School of Holbein  
James Laver, Costume & Fashion, p82.



〈그림 12〉 Emperor Charles V  
with his dog, 1532.  
James Laver, Costume & Fashion, p.86.



(그림 13) Upper and Lower hose  
1502-1509.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p.268.

5)장식선호: 르네상스와 포스트모던 시대의 유사점은 바로 그 이전시대의 사고 및 조형적 양식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는 점인데 르네상스의 추종자들은 중세의 모든 이념과 문화예술적인 면을 무시하고 고전기의 것을 추구한 것 처럼 포스트모던 추종자들도 모더니즘의 이념과 양식적 특징과의 단절을 고하고 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시켰다. 이와 함께 복식에서는 직선적이며 단순하고 장식을 배제하던 경향에서 장식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변화되어 여러 가지 복식에서 디테일과 트리밍, 악세서리 등이 활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 VII. 결 론

일원적 사고의 사회구조를 이룬 모던·고딕 시대 복식의 유사성과 다원적 사고의 사회구조를 이룬 포스트모던·르네상스시대 복식의 유

사성을 규명하고 모던에서 포스트모던, 그리고 고딕에서 르네상스시대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복식의 변화를 비교, 고찰해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던복식과 고딕시대 복식에 나타난 유사성은 첫째, 작은가슴과 마른몸매를 선호한 인체에 대한 미의식 둘째, 활동성을 부여한 기능위주의 편리한 복식의 출현 셋째, 대중화 경향, 넷째, 장식배제경향으로 나타났다.

포스트모던 복식과 르네상스 복식에 나타난 유사성은 첫째, 여성의 인체곡선을 강조하여 에로틱한 느낌을 유발할 수 있는 인체선호 둘째, 르네상스시대는 그리이스 로마스타일, 포스트모던시대에는 과거 다양한 스타일을 재 창조하는 복고주의적인 경향 셋째, 소수집단 패션의 대중화 현상; 르네상스시대의 슬래쉬패션, 포스트 모던 시대의 안티패션(Anti-fashion) 넷째, 기존의 전통적 복식규범을 파괴하는 해체주의적인 경향 다섯째, 장식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신 중심의 일원적 사회구조의 고딕시대, 기능주의적 형태만이 인간의 본질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던 모던시대의 일원적 미적 사고 구조속에서 나타난 복식조형의 공통점은 전체적인 실루엣과 비례를 중시하는 단순하고 장식이 배제된 스타일로 나타났다. 뒤를 이은, 인간의 본질과 이성적 합리주의적인 경향보다는, 각기 다른 인간 개개인의 다양한 삶에 어울리는 다양한 양식이 공존하는 다원주의적 경향의 르네상스,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전반적으로 인체곡선을 강조한 에로틱하면서도 장식이 풍부한, 다양한 집단의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하면서 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 고 문 헌

- 1) 김옥동(1994).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현암사, pp. 29-30
- 2) M. J. Horn, L. M. Gurel(1982). "The Second



-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Houghton & Mifflin Company, pp. 337-338
- 3) 정시화, op. cit., pp. 134-135
  - 4) Horn & Gurel, op cit., p. 287
  - 5) 서성록(1993). 한국미술과 포스트모더니즘, 미진사, p. 49
  - 6) 임영방(1993). 포스트모더니즘과 미술 : 건축에 있어서의 다의성과 절충주의, 예술문화 3집,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예술문화연구소, p.139-140
  - 7) C. Jenks(1986). *What is Post Modernism*, Academy Edition, St. Martin's Press, London, p. 14
  - 8) 김민수(1997) 21세기 디자인 문화탐사, 도서출판 숲, p. 119-120
  - 9) Ibid, p.119
  - 10) 정현숙, 양숙희(1997). 20세기 후반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3), pp.502-515
  - 11) Hal Forster(1983), *Post Modern Culture*, Pluto Press, pp.111-121
  - 12) John. A. Walker(1985). *Art in the Age of Mass Media*, Pluto Press, p.82
  - 13) 정현숙, 양숙희, op cit., p.506
  - 14) 조 규화(1982). 아르테코 패션: 1920년대의 Paris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조형논총 2, p. 240
  - 15) 정홍숙(1995). 포스트모던복식의 복고성에 관한 연구, 복식 25호, p.74
  - 16) Silverman, Kaja(1986). *Fragments of a Fashionable Discourse in Tania Mouldeski (ed.) Studies Inentertainment: Critical Approacjes to Mass Culture*, Bloomington, p.145
  - 17) Elizabeth Wilson(1996). *Postmodern Body in Juliet Ash and Elizabeth Wilson*, eds, Chic Thrills, Pamdpra, p.6
  - 18) 정현숙, 양숙희, op cit., pp.502-515
  - 19) 정현숙, 정홍숙(1997). 포스트모던 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 연구, 복식 35호, p.237
  - 20) 김주영, 양숙희(1997). 현대복식에 나타난 “외부로부터의 해체” 현상(제1본), 한국의류학회지, 21(8), p.1261-1274
  - 21) 김지연, 전해정(1997).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비교, 복식 32호, p.293-312
  - 22) 차하순(1983). 서양사 총론, 탐구당, p.157
  - 23) 박은구, 이연규(1987). 14세기 유럽사, 탐구당, pp.18-19
  - 24) 정홍숙(1988).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p. 141
  - 25) 차하순, op cit., p.69
  - 26) 이순홍(1997). 중세유럽의 생활미술과 복식문화에 관한 연구, 복식 35호, p.19
  - 27) 이순홍(1997). 르네상스시대 복식유형과 그 발생배경에 관한연구, 복식 30호, p.277
  - 28) 파울 프리샤우어(1992). 세계풍속사 下, 이윤기 옮김, 까치, p.40
  - 29) 차하순, op cit., p.238
  - 30) E. Burns, R. Lerner, S. Meacham, 서양문명의 역사, 박상익 역 소나무, 1994, p.515
  - 31) 이순홍, op cit., p.59
  - 32) 정홍숙, op cit., p.141
  - 33) Ibid., p. 145
  - 34) Anderson Black, Madge Garland(1997). *A History of Fashion*, 윤길순 옮김, 자작아카데미, p.152
  - 35) Kenneth Clark(1988) 누드의 미술사, 이 재호 역, 열하당, pp.386-387
  - 36) Margaret Scott(1980). *The History of Dress Series: Late Gothic Europe 1400-1500*, Humanity Press, N. J., p.41
  - 37) Ibid., p. 47
  - 38) E. M. Burns, R. Lerner, S. Meacham, op cit., p.504
  - 39) R. M. Letts(1991). *The Renaissance*, 김창규 역, 애경산업사, p.11
  - 40) 에두아르트 폭스, op cit., p.1
  - 41) Turner Wilcox(1958). *The Mode in Costume*, N.Y.: Charles Scrubnrnt's Son, pp.69-70

- 
- 42) Anderson Black, Madge Garland(1974).  
*History of Fashion*, William Morrow  
& Company, Inc. N.Y. p.144
- 43) 今和次郎集(1972). 服装史, 東京 :ドジス,  
p.171
- 44) 미학 예술학 사전, 안 영길외 6인 옮김  
(1990). 미진사, pp.32-41
- 45) Burns, Lerner, Meacham, op cit., p.421
- 46) D. A. Russel, *Costume History and Style*,  
Prentice-Hall Inc, p.128, 김 태연, 김 민  
자 논문에서 재인용
- 47) Ibid., p.130
- 48) 에두아르트 폭스, op cit., p.2
- 49) Ibid., p.5
- 50) 정홍숙, op cit., p.75
- 51) J. Black, M. Garland, op cit., pp.146-147